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5월 13일(금)
--(음력 4월 13일)--
Пятница
13 мая 2022г.
№ 18 (1198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5일은 국제 가족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과 쿠릴 열도 8,500명의 졸업생들이 졸업시험 준비

올해는 9학년생 5천500명과 11학년생 3천 명이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졸업시험 준비 일환으로 학생들은 러시아어와 수학 과목의 국가 학력고사를 치렀다. 정기 졸업 시험은 5월 19일 -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 3월부터 4월까지 국가 수능을 대비하는 지역 연습행사가 열렸고, 4월 27일에는 11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정보 과목에 따른 연방 시험 연습이 있었다. 5월 17일에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 국가 수능시험 형태로 사회상식, 영어(말하기 포함)과목의 전국 시험 연습이 진행된다.

9학년생들은 러시아어와 수학 두 과목 필수시험을 치르고 학생이 선택하는 2개의 선택과목에서 시험을 치른다. 성적증명서를 받기 위해 11학년 학생들도 필수과목 시험을 치러야 하고 다른 과목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치르게 된다.

"주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고사장으로 9학년생들의 고사장은 46곳, 이 중 3곳은 가정에서 치르며, 11학년생들을 위한 31개 고사장이 마련된다."고 주 교육부 야나스타시야 키크테와가 말했다.

국가 학력고사와 국가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에서의 모든 과정을 3천 명 이상의 교사들이 수행하며, 또한 고사장에는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 학생들의 개별적 요청을 고려해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 미술박물관, 한민족문화의 날을 개최

5월 15일(일)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이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공동으로 한민족 문화의 날을 개최한다. 12시와 14시에는 <한반도 현대 미술>상설 전시관을 둘러 볼 수 있고 15시에는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민족타악기팀, '아리랑'무용단, 최 율리아 가수 and 서 마리나 가수가 무대에 오르고, 한민족 문화에 대해 소개한다.

이날 한글 쓰기, 사물놀이 활동교실도 열리며, 한복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입장은 무료다.

한민족 문화의 날 행사는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 유산의 해'기념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다.

<에트노스>학교 한민족 문화 예술 공연 발표 개최

5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 문화 예술과 학생들의 공연을 개최한다. '천둥의 모래' 같은 환상'이란 공연 프로그램은 가야금 연주와 사물놀이의 민족적 리듬과 무용단 등 무대로 이어진다고 <에트노스>학교 측이 전했다.

올해 사할린주에서 갓 잡은 신선한 생선 160톤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

2022년 1분기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배나 더 많았다.

이 같은 정보가 네벨스크 구역을 방문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과 이 지역 가구의 노인들과 '돌봄·보호·존중'기획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에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주지사의 주도로 사할린 지역에서는 어업 종사자들로부터 갓 잡은 생선을 직거래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 지역의 지정된 생선 판매점에서 신선한 생선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갓 잡은 생선들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선박에서 직판장으로 공급된다. 가공이나 냉동, 냉장 보관 절차를 제거하고 있다. 지방 행정부도 각 지역들에 생선 공급을 돕는 가운데 직거래 시장의 무료 판매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조치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선을 공급

하도록 하고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계절에 따라 어획종이 달라지는데 겨울에는 많이 요구되는 '나와가'가 판매되고, 현재는 명태, 대구, 가자미가 판매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연어와 송어를 살 수 있다. 현재 청어 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지난주에는 청어 16톤을 무료로 배포했는데 그중 1.3톤을 특별로 네벨스크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신선한 생선 판매장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지도상에서 사할린 전 지역에 직판장이 제시되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생선을 판매하는 곳이며, 이 지도는 매일 새로이 업데이트된다. 현재 네벨스크와 고르노자위드스크의 5개 판매장에서 신선한 생선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구역 중심지 직거래 장터와 사회적 상점이다. 대구는 킬로그렘당 110루블리, 명태는 88

루블리, 가자미는 83루블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사할린주 수산청 이완 라드첸코 청장이 말했다.

또한 신선한 생선 직판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휴대전화 앱 '오스트로와.65'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주민들은 자동으로 판매장과 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쉼부니노 마을의 활동가들과 주지사가 만남을 가지며 이들은 네벨스크와 고르노자위드스크만 아니라 이 마을에도 신선한 생선이 판매되도록 요청하여 주지사는 이것이 조성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남에서는 '돌봄, 보호, 존중'프로그램의 다른 영역이 검토된 가운데 주택관리소의 올가는 1-300 전화 의료서비스 덕분에 5월 명절 이후 내과의사에게 진료 예약 접수증을 내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심장학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네벨스크의 한 고령의 주민에게는 지정 전문의 진료 전에 내과의사

의 선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자의 진료 예약도 1-300 외과의에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전문의에게 환자가 진료받도록 예약하고 있다.

네벨스크 지역 단체장인 알렉세이 사벨니크는 주택가 보수공사에 대해 언급했다.

<극동지역의 1000 주택가>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3개 주택가 구역에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가 40개소의 구멍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8개소 주택가 구역은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있다.

'돌봄, 보호, 존중' 프로그램은 의료지원 확대 및 품질 향상, 사회적 지원조치 개선, 사회적 상점망 확대, 가정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주택가들에서 현재 공사를 설정하고 있다.

이 기획의 자원봉사자들은 진료를 위한 예약, 가스 연결을 위한 신청 및 사할린 주민 카드 혜택을 받도록 도우며, 사람 간 및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81루블리 5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만 교사 자격이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8호 중학교 김정옥 초등학부 교사

"5월 21일 제13호 학교 '마지막 종소리'졸업행사에 초대 받았어요. 제가 이 학교가 마지막으로 졸업시키는 학생들의 초등학부(초등교육 - 4년) 교사였습니다. 초등학부 4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들이 학교 11학년을 마치네요. 제 생에서 이 반이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학생들인 것 같아요. 공부 의욕이 남다른 애들이니까."라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제8중학교의 김정옥(김 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 초등학부 교사가 말하였다.

그의 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이었다. 어릴 적에 인형들을 앉혀놓고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임을 자주 하곤 했다고 한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꿈은 변함 없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학생 자치관리의 날이 있을 때마다 꼭 초등학생반에 가서 교사 대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직업의 목표를 분명히 세운 그는 사할린국립대 사범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녀의 선택에 부모가 반대하지 않은 것이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사실 러시아 경제가 무너졌던 1990년대 당시 교직이란 직업에 대한 우대나 인기도 없었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직업으로 여겼던 시절이다.

김정옥 선생은 코르사코브에서 태어나 학교 11학년 졸업까지 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공부하러 와서 2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2년제 사범전문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고 20세

에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3호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선생으로 그가 맡은 첫 학생들은 이미 3학년생이었다. 나탈리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이들과 만남을 기다렸다. 성실한 성격이라 수업 준비를 할 때 필수로 준비과정을 적었는데 자기소개와 인사말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었다고 한다.

26년차 교사이지만 나탈리아는 지금도 각 수업을 꼼꼼히 준비한다. 초기처럼 자세히는 아니지만 수업내용은 꼭 적는다. 이것이 필수 과정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전문대를 1996년에 졸업했는데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1999년에 사할린국립대 초등교육방법론과에 입학하여 일하면서 공부하여 3년만(사범전문콜레즈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마쳤다.

사실 그의 사범전문대 동료들 중 현재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탈리아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직에 대한 충실함을 잃지 않았다.

1996년부터 제13호 학교에서 19년간 일했는데 2015년에 제8호 학교로 옮겼다. 그 이유는 제8학교 학교에 그의 딸과 아들이 다녔고, 집이 학교 근처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서도 바로 그가 좋은 초등학교 교사란 걸 알게 되어 그에게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다.

나탈리아는 오랜 고민 끝에 거의 20년간 일해왔던 학교를 옮겨 8호 학교에서 일하기로 했다.



고급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나탈리아는 수준 높은 초등교육 방법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제8호 학교에서 현재 초등교육반은 17반이다. 초등교육 담당 교감도 있고,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초등교육방법론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 지도자가 바로 김정옥 선생이다. 그는 현재 3학년 '베'반을 맡아 하면서 센터장으로도 활동한다.

"센터에서는 초등학부 교사들을 위해 여러 교수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김 센터장이 전했다. 센터장이 초등교육과 관련된 일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고,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성실함을 요구하는 일이고, 반 담당도 해야 해서 사실 교사들이 피하는 일이다.

책임감이 높은 분으로서 김 선생이 센터장을 하는 이유인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정옥 교사는 정말 교직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각 반이 다릅니다. 항상 이들에게 맞추어 나가고, 이들과 함께 나도 성장합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인 이웃 사랑, 인내, 친절함 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우정이 무엇인지, 소통법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선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특히, 첫 선생님에게서 배웁니다."라고 교직에 대한 소견을 말했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서로 교제가 부족하고 서로 친해지려는 것보다 스마트폰과 더 잘 노는 세상이다 보니 인간관계 중요성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고 김 선생이 강조했다.

그렇다. 선생은 그저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특히, 첫 선생은 아이들에게 이 넓은 세상을 여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가치관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이 방면에서 김정옥 선생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그의 반에서는 학생 34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중 3년 전에 20명의 학생의 학부모는 김 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를 지목해 김 선생의 반에서 아이를 맡아 가르쳐주길 원한다고 했다고 한다.

소문을 듣고 온 학생들도 있고, 추천을 받고 온 학생, 그리고 전 제자들의 아이들도 있다.

그의 전하기 목록에는 600여 명의 연락처가 있는데 대다수는 제자와 학부모의 연락처다.

명절 때 수많은 축하문을 받고 특히 교사의 날에 전하기가 터질 것 같다고 말한다.

22세의 맏딸은 현재 모스크바 국립언어학대학교 국제학과 석사과정 장학생(전공 영어와 스페인어)인데 김 선생은 딸이 추가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범 자격증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14세의 아들도 사범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아들도 엄마의 말에 동의하며, 축구를 하는 아들은 앞으로 체육교사를 전공할 생각이라고 한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적극 교직을 추천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직업이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고 있어서 아닌가 싶다.

그의 사생활에서는 가족과 친구들과 자유시간을 갖고, 가족 여행을 즐기며, 진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도 살뜰히 보살핀다고 한다.

곧 학기가 종료된다. 올해 그의 제자들이 중학교를 졸업한다. 이들은 학교 첫 선생을 잊지 않고 해마다 야외 행사에 초대하기도 한다. 가르쳐준 선생을 잊지않고 찾아주는 학생들이 있어 교사로서 보람과 기쁨으로 교직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김정옥 선생은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 성장하는 학생들을 대견하게 여기며, 사랑과 희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도 어린 학생들을 마주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진 사람들' 포럼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국제 장애인 권리 투쟁의 날을 맞아 <균등한 기회를 가진 사람들> 포럼이 열렸다. 이날 사할린주 도서관이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발달장애아 부모연합 '열린 마음'회에서 90명 이상이 모였다. 포럼은 장애아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의문점들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의 참가자들에게 장애아가 있는 가정을 위해 제정된 사회적 지원 방안들, 의료적 혜택, 세금 우대, 연금 수급권, 장애아 양육 비용이 필요한 부모에게 이에 따른 연금 산정, 농원 운영을 위한 토지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 참석자들의 질문에 사회복지부, 시립아동 병원, 연방 세무국, 연금재단국, 시 토지운용청과 러시아 내무부 교통안전 감독부의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이 답변했다.

끝으로 비영리 자율단체인 '기쁨' 모성지원센터의 알렉산드라 자블로츠키야 센터장이 활동교실을 열고, 어머니들에게 심리적 자제 기술을 가르쳐주었다고 러시아 여성연맹 유즈노사할린스크 분과에서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орум «Люди ра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ёл форум "Люди ра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свящё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борьбы за права инвалид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оно собрало более 90 участников клуба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объединяющего родителей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Форум был посвящён вопросам и проблемам, возникающим у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рассказали о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для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о медицинском обеспечении, налоговых преференциях, о прав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алгоритме начисления пенсии родителям, находящимся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инвалидом,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садоводства.

На вопросы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ответ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детской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управ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отдел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департамента землепользования города и управления ГИБДД УМВД.

В конце Александра Заболотская, руководитель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материнства Радость", провела мастер-класс и научила мам быстрым техникам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самопомощи, сообщает городск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도시는 어떻게 건설됐나' 사진 전시회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원에서 개최

사할린주 국가 역사 고문서 재단의 회고 사진전은 이미 <서식 환경>인 공원의 친숙한 요소가 되었다.

고문서 전문가들과 공원 관리부의 긴밀한 협력 덕에 공원 오솔길 한 곳이 국가 역사 고문서보관소 계몽 기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역사적 오솔길이 되었다.

국가 역사 고문서보관소의 계몽 기획인 '역사의 실타레'는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기념하여 각 분기마다 새로이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 및 휴식공원의 주인과 협력자에게 예의를 표하는 첫째 사진 전시물은 1950년-1980년대의 일상과 명절을 소개했고, 둘째는 사할린의 겨울 스포츠를, 셋째 전시물은 시대적 단편들을 모아 소련의 도시 건축가들 덕분에 형성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 역사 고문서보관소 소장 세르게이 차로츠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시회에 전시된 사진 자료들은 사할린주 건설산

업의 기반이 닦이고, 핵심적 잠재력이 형성되고, 산업의 전통 규칙이 확립되고, 우리 도시의 모습이 이루어졌던 중요한 시기들을 담고 있다.

각 전시물의 장면들은 젊은 사할린 주민들에게 자신의 도시가 건설되는 순간이 어땠는지 보여주고, 초기 남부에는 도로 대신에 도로의 초석만 다져놓은 모습, 중심 구역에 잡초가 자라고 그와 함께 미래의 핵심 구조물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스파르타크'경기장, 사흐인센터, 옥차브리 영화관, '체로 무슈키'구역, 주 학술도서관, 레닌 동상과 다른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지형적 목적 구조물로 남아있다.

사진작가 프리웨젠체브, 소콜로브, 주라블료브, 아글리체예브의 촬영 대상은 가장 중요한 시설들에서 건축가들, 서민들, 포즈를 취한 사람들이었다.

보관됐던 사진들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노동들을 되돌아 보게도 한다. 이는 쥐호르스키와 자이체브의 미장공과 페인트 공, 안드레이 토브쿠스의 콘크리트 작업반, 와실리 말로브, 사회 노동영웅 미하일 짜차코브의 건설 작업반이다.

각 흑백 장면에는 전문 건축가들의 이루어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담겨있다. 자신의 도시를 더 빨리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드러난 수보트니크(청소부)들 속에서 고위직의 사장들도 손에 마이크가 아닌 미장도구를 쥐고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역사의 실타레' 다음 회기 기획 전시는 가을에 열린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Ю.Гагарина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Как город строился»

Выставки ретрофотографии из фон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ИАСО) уже стали привычным элементом парковой «среды обитания».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대조국전쟁 전승 77주년 기념

지난 5월 9일 전 러시아가 대조국전쟁 승리 77주년을 기념했다. 사할린주 전역에서도 전승절을 기념했다. 가장 큰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거행되었다.

동부군구의 깃발단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행진함으로 군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열병식은 제68군단 드미트리 로즈코브 사령관 대행이 지휘했다. 이날 그는 모든 행사 참가자들에게 승리의 날을 축하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여러분의 용기와 강인함과 영웅적 업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러시아와 사할린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분을 항상 돌보겠습니다."라고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열병식에는 장병 및 생도 800여 명, 전투기 32대가 참여했다. 이번에 열병식에서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 '우라칸', '그라드' 및 '스메르치'를 볼 수 있었고 처음으로 작년부터 사할린을 방어하는 '바스티온' 해안 미사일 시스템도 열병식에 참여했다. 전설적인 소련 로켓 포병 전투차량 BM-13 카투사가 전투기 행진의 마지막 순서로 행진했다.

군인, 전투기 퍼레이드가 있던 후 1만 명의 이상으로 이루어진 <불멸의 연대>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전사한 참전용사들의 사진을 들고 가는 가족들은 총상 성화와 영웅기념단에 헌화하기 위해 영예(슬라와)광장까지 행진했다.

<불멸의연대>행진 이후 크고 작은 전승 기념행사들이 도시 여러 곳에서 펼쳐졌는데 많은 시민들은 가가린 공원, 포베다 박물관, 향토박물관 등을 특히 많이 찾았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박물관 앞 행사장에는 군사장비가 전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승일은 20시에 승리광장에서 열린 공연과 22시에 불꽃놀이로 마무리됐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어버이날 기념

지난 7일(토) 어버이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서 전통적인 노인정 모임이 있었다. 할머니들은 우선 시한인회 회원인 이봉을 간호사에게서 건강에 따른 진료를 받고 윤 소피아 치료제조전문가 지도 아래 가벼운 몸운동을 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한국 사업가가 축하하며 금일봉도 전했다.

한민족 문화를 배우는 유치원생들은 이날 할머니들에게 큰절도 올리고, 간단한 공연도 보여준 후 꽃을 선사했다.

축하공연은 강상욱·박위석 동포가수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다.

시한인회 여성분들이 정성껏 차려진 명절상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이 보내주신 떡도 올랐다.

어버이날을 맞아 대접을 잘 받은 할머니들은 점심 후에도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하며 춤을 추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약 6만 명의 사할린 학생들, 여름 건강캠프에 참가

6월 1일부터 사할린주에 학생 여름 건강캠프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 캠프 준비를 위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정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여름캠프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전 학생들 95%를 수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휴식과 보건과 활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3개월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사할린에서 학생 여름캠프는 6개의 건강 재활 캠프장, 4곳의 텐트 캠프장, 115개 전문 캠프장, 199개의 일일 캠프장, 49개의 노동과 휴식 캠프장이 기능을 하게 된다.

사할린의 영재 학생 400명은 전 러시아 및 국제 학생센터 - '오케안', '올름료노크', '스메나', '아르테크'-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600여 명의 학생들은 사할린이 아닌 타지역에서 교외 건강 재활센터에서 지내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캠프 중이라 해도 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고, 캠프에 1일 체류를 위한 추가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이 캠프는 주 교육기관을 비롯해 문화 및 스포츠기관에도 마련된다."고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가 말했다.

올해 주 예산에서는 학생들의 휴식과 건강 캠프 조직에 5억 6천만 루블가가 배정되었다.

또한 주에서는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시외 캠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그외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부모가 비용의 15%만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중심의 거처 / 김규성

이르자마자 곧 떠나야 하는
거기가 출발점이어서
현재가 없듯이
따로 정처가 없는
강물의 중심은 어디일까
잠시 몸 쉬고 있는
한순간도
가만있지 못하고 흐르는
이 마음의 중심은 어디일까
그 거처를
나보다도 오래된
벽시계에게 물어보지만
중점을 모르는 시침은
쫓기듯이 달려가며
오히려 내게 되묻는다

"며칠 전 출판된 따끈따끈한 시집입니다. 김규성 시인의 <중심의 거처>.

'거처'란 의식주를 해결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곳을 말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 그래요. '집'이라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안식처, 편히 쉬는 곳. 생각해 보니 강물에게 '거처'는 없어 보이네요. 방향만 있을 뿐. 쉬지 않고 어디론가 흘러야 합니다. 멈춰 거처를 마련했다면 그건 강물이 아니니까요. 고인물.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물의 인생이란 광활한 바다에 이른다 해도 줄곧 쉴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나그네도 이런 나그네가 없습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 이제는 밀물과 썰물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멀미가 나도 쉴 수 없습니다. 쉰다는 건, 거처를 마련한다는 건 강물에게 있어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테니. 가만보면 우리 인간의 의식과 닮았습니다. 중력과 달의 인력에 의해 쉴 수 없는 강물이나, 고민이 끊이지 않을 우리네 인생처럼 말이죠.

명상을 하고 산에 오르고, 물구나무를 서도 마음의 안식처를 찾이란 쉽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망각을 할 순 있어도 '불안'은 늘 우리 곁을 서성일 테니까요. 차라리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고민과 불안을 떠안는 겁니다. 불안을 떨쳐내면 말이죠. 다시 또 다른 불안 하나가 어느새 어깨 위에 업힐 테니까요. 어부바, 이러면서."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두릅이 몽글 몽글 알싸을 내밀었다



이병일

두릅이 몽글 몽글 알싸을 내밀었다
날 곧 잡아 벗님들 함께
봄 손님 맞으리
비탈길 웃음꽃 피면
봄꽃씩 연두있도 반겨 주리라
두릅이 몽글 몽글 알싸을 내밀었다
날 곧 잡아 벗님들 함께
봄 손님 맞으리
비탈길 웃음꽃 피면
봄꽃씩 연두있도 반겨 주리라

2022년 5월 5일

9 мая – День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День родителей прошел в ЮСМООК

7 мая в рамках Клуба бабуше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провела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Дню почитания родителей (ОБОИНАЛЬ).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живо и празднично.

Как всегда, И Бон Юри (Лариса Васильевна) проверила у всех пришедших бабушек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их самочувствие, Софья Ивановна Юн выполнила с ними несколько разминочных упражнений.

Затем от имени членов ЮСМООК с поздравлением выступил Лим Ден Хван.

Тепло поздравили бабушек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рина Никитина,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И Бен И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Они также вручили каждой бабушке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конверты.

Поздравили их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дошколята (руководитель Ю Кен Ок). Он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одежде открыли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исполнив небольшую сценку, выполнили поклон, показав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Затем подарили бабушкам цветы. А они в ответ – сладости.

Свои песн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 подарили также 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Кан Сан Ук и Пак Ул Сон, гости. Да и сами бабушки много пели и танцевали.

Праздник продолжился и после праздничного обеда. Сообщили в ЮСМООК.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Единственное – было грустно и печально, что бабушек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тановится меньше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ин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 581 руб. 5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вечно в памяти народной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о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лександре Павловиче Мине

В.Д. Ким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7)

5 мая 1944 года.

Это было последнее письмо. После этого родственники в ответ на сво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запросы получили письмо от начальника штаба 605-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от 15.07.44 г. № 630.

Брату Мин Чан-Хо, Кызыл-Орд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род Аральск, улица Красноармейская, дом № 11.

Командование части сообщает, что Ваш брат капитан Мин А.П. пал смертью храбрых в боях с немецкими захватчиками, проявил себя, как преданный сын нашей Родины. За образцовое выполнение боевых заданий на фронте в борьбе с немецкими захватчиками и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этом доблесть и мужество он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орден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епени и орденом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Письмо подписано командиром 605-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и датировано 15 июля 1944 года, № 630.

«Никто не забыт, ничто не забыто» — эти слова не просто высечены на камне, они высечены в душах тех, кто сам помнит войну и стремится воспитать молодежь так, чтобы подобное не могло повториться. Поэтому по крупицам собираем мы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сведения о подвигах героев той войны. Известны боевые дела и Александра Мина, отмеченные высшей наградой страны.

Летом 1943 года батальон был в окружении. Лейтенант Мин сумел организовать крепкую круговую оборону и помогал при этом командиру батальона. Лично участвовал в отражении четырех атак немцев, проявил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храбрость. Когда прорвали кольцо окружения, Александр Мин оставался в боевых порядках бойцов и своим личным примером увлекал остальных. Лично уничтожил семь немцев. Приказом по 70-й армии № 065/н от 25.07.43 года А.П. Мин был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Документ об этом подписан командующим войсками 70-й армии гв.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ом Галаниным.

5 сентября 1943 года лейтенант Мин прави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л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дразделений, связь между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и штабом полка. В бою за деревню Жензакки точно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передавал приказы командира полка и батальона и их выполнение. Когда был ранен командир I стрелковой роты, А. Мин принял командование ротой на себя, нанес удар противнику с левого фланга. В результат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врага было сломлено, задача была выполнена. В этом бою было уничтожено до 40 немцев. За умелое руководство, мужество и отвагу товарищ Мин награжден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наградой — орден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епени за № 614414. Эта справка подписана командиром 605-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подполковником Фоломеевым.

Не менее выразительны и лаконичны строки приказа:

Приказ № 77 СК за № 2/н от 20.09.43 г. 2 В бою под г. Холодники м. Калинковицы БССР 8.01.44 г. во время прорыва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т. Мин прави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л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дразделений, хорошую связь с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батальон первым прорвал оборону противника и начал про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При этом задача, поставленная перед батальоном, была выполнена. Товарищ Мин лично продвигался в боевых порядках и руководил бое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поле,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было уничтожено 150 немцев, взято в плен 2 немецких солдата, прорвана оборона противника и заняты важные рубежи.

Приказом командующего 65-й арми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Батова № 238/н от 9.02.1944 г. товарищ А.П. Мин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Орден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 степени за № 227512 (приказ командующего I Белорусским фронтом № 48/н от 26.07.1944 г.) Александр Мин был награжден, как видно из даты приказа, уж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бою под Ковелем погиб смертью героя.

И вот последние бои героического офицера Александра Мина. В боях за город Ковель Волы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 командовал батальоном. Он все время находился в боевых порядках пехоты, откуда руководил боем. Несмотря на ожесточенн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противника, в результате смелого и решитель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боем было отражено пять контратак противника, и батальон снова продвинулся вперед. В бою за деревню Старые Кошары смелым обходным маневром товарищ Мин со своим батальоном зашел противнику во фланги и решите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выбил его из деревни. Деревня была освобождена в рукопашном бою. Капитан лично руководил этим боем. Как указано в приказе:

...в последующих боях в районе деревни Пародубы и при прорыве обороны немцев в районе деревни Пародубы товарищ Мин также находился в боевых порядках пехоты, где лично руководил боем. В этом бою товарищ Мин погиб смертью героя. За проявленные смелость и героизм в бою товарищ Мин достоин присвоения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смертно.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обеды

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частях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остоялись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Победы. В КНДР акции прошли со значительным размахом. Как сообщает посольство РФ в Пхеньяне, в столице Страны чучхе 9 мая прошел полноценный марш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Впервые к 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и китайские друзья - дипломаты посольства КНР в КНДР.

Сотрудники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КНДР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Монументу Освобождения на сопке Моранбон и к могилам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на мемори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Садонском районе города Пхенья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КНДР организовало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ях почетного караула и оркестр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Впервые с начал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мире и введе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строжайших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вместе с нами смогли прийти 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коллеги из Пер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Европы МИД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8 и 9 мая в городах Расон и Чондин, что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мемориалам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и монументам освобождения. В этих акц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ипломаты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Пхеньяне, коллектив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оссии в Чондине, сотрудники совместно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РасонКонтранс",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города Расона, Чондина и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Хамгён.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душевно поздравили всех россиян с Днем Победы, пообещав прилага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В письме, разосланном от имени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обеда СССР в советско-германской войне явля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внесшим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окончательную победу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попытки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 пересмотреть итог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икто не в силах измени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ы" и "весь мир будет помнить о решающей роли СССР в победе".

В южн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9 мая посольство РФ в Сеуле собрал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встречу, в ходе которой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ндрей Кулик поздравил собравшихся со светлым праздником. В фойе посольств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фото-выставка "Лица Победы". Накануне учащиеся школы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Ф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исполнялись песни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Генеральном консульстве РФ во втором крупнейшем городе Южной Кореи Пусане такж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участием дипломатов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м советом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ошла, но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до сих пор действующих в стране, он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инаугу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10 мая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здан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инаугураци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Он прибыл к месту её проведения в 10:50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ладбища. У ворот его встречали дети из городов Тэгу и Кванчжу с букетами цветов в руках. Проходя к сцене, Юн Сок Ёль приветствовал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прикосновением кулака вместо рукопожатия, учитыв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блюдать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вы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 одет в строгий костюм тёмно-синего цвета со светло-голубым галстуком, а его супруга – в белое платье. Поднявшись на сцену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20 граждан, отобранных оргкомитетом церемонии, Юн Сок Ёль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ов Мун Чжэ Ина и Пак Кын Хе. Экс-президента Ли Мён Бака, находящегося в заключении, представляла его супруга Ким Юн Ок, а Кwon Ян Сук, супруга покой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Но Мун Хёна, не смогла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В начале церемонии четыре Героя РК зачитали клятву верности флагу страны. Затем вокалист Ён Гван Чхоль и хор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сполнили национальный гимн.

Пекин и Токио надеются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улом

На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состоявшейся 10 мая, Пекин представля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Ван Цишань. Он является фактически вторым по степени влияния китайским политиком. Прежде на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 уровне вице-преьер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Пекин придаё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отношениям с РК на фон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 США. Среди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беспокоят Пекин, обещания Юн Сок Ёля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размещении в стране американских систем ПРО THAAD. Между тем, Японию на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л глава МИД Ёсимаса Хаяси, соратник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Фумио Кисиды. Глав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Японии посещает РК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четыре года. Известно, что Ёсимаса Хаяси намерен встретить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Юн Сок Ёлем, чтобы обсудить ряд вопросов и передать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ослание от Фумио Кисиды.

В РК возобновят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ле отмены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РК постепенно возвращается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 этой связи с 1 июня иностранцы из ряда стран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РК в безвизовом режиме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ые аэропорты Чечжу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и Янъян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4 ма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Чон Хэ Чхоль. Он отметил, что иностранцы должны будут соблюдать все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е меры. Аэропорт Чечжу прекратил приём туристов, прибывающих в безвизовом режиме, с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в связи с обострением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Аэропорт Янъян намерен принимать без виз турис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из Вьетнама, Индонезии, Филиппин, Монголии. Чон Хэ Чхоль сообщил также о планах поддерживать удалён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в целях снижения вероятности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этом году 400 компаний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частичном переходе на удалённый дистанцион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Им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субсидии и поддержка в установке необходимого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оборудования.

(RKI)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Мун Чжэ Ин попрощался с корейцами в качестве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Девятое мая –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этот день он с прощальным словом обратился к нации, где в своей речи в весьма эмоциональной манере подвел итоги своего правления. "Сегодня я слагаю с себя тяжелое бремя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Отныне я вновь становлюсь обыч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страны и желаю всему нашему народу счастья", – сказал он. Му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страна, сохранив завоеванные достижения, продолжит успешное развитие. Явно апеллируя к тому расколу, которы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итоги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Мун призвал нацию к сплочению и единству.

Мун, который очень много сил и средств потратил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ризвал продолжать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остижение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ир - это условие выживания для всех нас, условие для процветания. Я искренне надеюсь, что через возобновл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продолжатся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остижени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закрепления мира", – отметил он.

Уходящий лидер признал, что есть те цели и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он ставил, но не смог достигнуть. Но, как он подчеркнул, "это произошло не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не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усилий и воли, а потому, что препятствия оказались слишком высокими",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что после него Корея сможет все-таки совершить то, чт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Я очень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смог вместе с великим корейским народом совместно пройти этот отрезок успешной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меня было огромной честью быть все это время с корейской нацией. Искренне надеюсь на успешн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сказал Мун Чжэ Ина на прощание.

Политологи и эксперты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подводят свои итоги правления Мун Чжэ Ина. Как это часто бывает, однозначно трудно 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те пять лет, которые Южная Корея прошл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уна – были успехи, были и неудачи.

В мае 2017 года Мун пришел к власти на волне "революции свечей", когда нация через многомиллионные демонстрации и процесс импичмента досрочно отстранила от власти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ая вскоре оказалась в тюрьме по более чем 20 обвинениям, получив в итоге приговор в более чем два десятка лет заключения. Тогда Муна встретили с большим энтузиазмом и огромными надеждами.

Му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 своему стилю правления отличался от многих корейск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 он активно общался с народом, не принимал авторитарного стиля правления, никогда не отказывал тем, кто желал с ним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а одной из его фирменных шуток было подойти сзади к людям, делающим "селфи", и тоже оказаться в кадре, чтобы заставить людей изумленно оглядываться и смеяться.

В отличие от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ую во многом и погубило "политическое затворничество", когда она все указания передавала через узкий круг помощников, минимизируя свой диалог с публикой, Мун же при любом случае появлялся лично, быстро реагируя на кризисы.

Это же стремление самому, в мягкой манере и с обаятельной улыбкой разговаривать лично, полностью он реализовал и в попытках наладить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Вообще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стали тем направлением, на которое Мун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бросили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стремя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делать что-то новое и революционное. Мун стал первым лидером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й при посещении КНДР лично обратился к сотням тысяч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выступая на центральном стадионе Пхеньяна. Мун и Ким Чен Ын провели три полноценных саммита, а лично встречались четыре раза в 2018 и 2019 годах.

Не будет ошибкой сказать, что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личным усилиям Муна и его помощников,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уговаривал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состоялись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аммиты лидеров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езусловно, для эт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встреч "сошлись"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звезд, но без Муна и его министров, которые "метались" между Трампом и Кимом, когда главы США и КНДР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было отказались от идеи саммита, исторические встречи в Сингапуре и Ханое вряд ли бы произошли. Если судить по обмену личными письмами,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 качестве прощального общения,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наладили хорошие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относятся друг к другу с уважение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если отбросить эмоции, то приходится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многие усилия Муна и его

команды по части развит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ушли как вода в песок. 2018 год, который однозначно можно назвать апогее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сменился охлаждением, когда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личные пожелания Муна есть ещ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США, КНДР, а такж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Сеула как союзника Вашингтона. В итоге Пхеньян стал игнорировать все призывы Юга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понимая, что из-за США Сеул даже при Мун Чжэ Ине не сможет дать КНДР того, в чем нуждается руковод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 под конец правлени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ернулась к практике запусков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как это и делала, когда Мун только пришел к власти.

Безусловно к заслуг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ун Чжэ Ина можно отнести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2018, которая, к слову, стала в том числе и тем мероприятием, где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делали большие шаги навстречу друг другу.

Среди других успехов Муна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также и весьма успешно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большинством других стран мира, реагирова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ую для человечества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Когда другие страны вводили локдауны, власти РК ни разу не прибегали к подобной мере, сумев убедить сограждан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блюден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итоге Корея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тем, что у нее один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0,14 процента) в мире показателей летальности от COVID-19, а экономика хотя и пострадала от пандемии, но куда меньше, чем у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Экономику в целом также можно занести в актив правления Муна. Страна продолжала стабильное развитие, показатели экспорта сейчас бьют рекорды, а коронавирус и новые реалии жизни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смог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н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зарабатывания денег, применив свои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типа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Параллельно многое было сделано, чтобы заложить основу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РК в новых сферах,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я альтернативную энергетику, биотехнологии, сферу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батарей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Если же так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то почему же Мун, который лично сам не имел права переизбираться, не смог обеспечить продолжение правления своей партии? Конечно, есть и претензии к уходящему президенту. Наверное, главным фактором, который похоронил попытк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ыходцем из которой Мун является, продлить свое правление стали неудач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уна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высоких цен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Вводимые одни за други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азлич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были нацелены на ограничение спекуляций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и призванные ограничить рост цен, имели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й эффект – стоимость жилья при Муне в Корею наоборот продолжила расти и причем рекордными темпами.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квартиры в Сеуле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миллиону долларов, а молодежь уже и не мечтает о том, чтоб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копить на квартиру. Параллельно наложился рост конкуренции пр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негатив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пандемии, что во многом и оттолкнуло от Муна и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демократов многи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о главный провал Муна – это цены на жилье, что он сам, впрочем, открыто и признает.

Среди других неудач можно отметить и скандалы внутри своего окруж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с назначением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соратника Муна Чо Гука, которому в итоге под давлением критики и разных выявленных фактов нарушени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 стороны его жены) пришлось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На это наложился и личный конфликт Мун Чжэ Ина с назначенным им же генеральным прокурором Юн Сок Ёлем, который стал выявлять факты нарушений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уна, сумев тем самым создать себе имидж принципиального борца с коррупцией. В итоге это и позволило Юну сначала стать кандидатом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консервативной партии, а в итоге победить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9 марта 2022 г., что безусловно стало сильнейш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плеухой как для самого Муна, так и дл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также не все однозначно. При Муне Южная Корея сумела улучш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бочие,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и, хотя поддержала санкции Запада против РФ после 24 февраля, не спешила полностью сжигать все мосты отношений с Москвой.

(Оконча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в этом году охватит больше дорог и дв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нял вопрос устранения дефектов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выполнили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Пешеходы и автомобилисты оценили эту работу. В этом году мы не снижаем планку и намерены завершить основной фронт работ на дорогах и во дворах ко Дню России, 12 июня. Необходимо успеть к празднику,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все лето ходить и ездить по ровным дорога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апреля специалисты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волонтеры «Единой России»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иску ям на дорогах. Сообщить о дефектах можно с помощью портал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роводить дефектовку помогают также современные нейросетевые технологии. Специальный автомобиль с комплексом фотовидеофиксации инспектирует улицы и отмечает все нарушения содержания дорог.

– На сегодня на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явлено более 52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ефектов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Силами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же устранено 3100 «квадратов». Речь идет о мелких дефектах и небольших картах. Всего к 12 июня планируем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порядка 20 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орожного покрытия, – сообщил первый вице-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 Гринберг.

Ремонт большими картами асфальта охватит около 57 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орожного покрытия. В этом году к работам приступили раньше и уже успели восстановить 7270 «квадрат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вели меньший объем рабо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5072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и порядка 42 000 – большими картами.

В этом году вырастут объемы и по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Сегодня поступили заявки от 33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Специалист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волонтеры посетили дворы с инспекцией. Подтвердилась потребность в ямочном ремонте на 409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Эта цифра еще будет увеличиваться.

Вс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текущими работ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охватить не менее 700 дворов. Вместе с ямочным ремонтом там, где это требуется, будут также приводить в порядок входные группы, скамейки, штакетник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делать озелен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й станции в Корсакове завершат к 30 июня

Такой срок был обозначе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и волонтерам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В июле на ГРС начнутся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Первым объектом, который получит доступ к голубому топливу, станет новая котельная. Затем будут газифицированы предприятия и жилые дома Корсакова.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подано полторы тысячи заявок на газификацию, сети уже подведены к домам. Подключенные выполнят в этом году.

– Важно уже сегодня заниматься подготовкой домов к приему газа. В этом сахалинцам помогают волонтеры – объясняют все тонкости процесса, консультируют по вопросам оформле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Чтобы сделать процедуру подключения домов прозрачной, мы раз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сервис. На цифровой карте будут обозначены адреса заявок и статус их выполнения. Скоро этот сайт заработает,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Каждый домовладелец може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до 152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одготовку дома к приему газа.

–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с Газпромбанком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ахалинцам специального кредита. Так, домовладелец может взять кредит, установить внутридомовое газ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а затем погасить заем, используя компенсацию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рассказа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бсудил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и волонтерами ход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Забор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Были подняты вопросы медицины,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энергетики, торговли,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 В наших селах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40 сем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Ежеквартально они получают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Для этого им приходится ездить в райцентр. При этом в селе Озерское, где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 31 семья из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начал работать социальный магазин. Людям было бы удобно забирать продукты из торговой точки в их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Можно ли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участник встречи.

– Безусловно, люди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Озерск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мы до них доведем,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будет создан совет старших по домам. Уже в этом месяце активисты встретятся с главой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 собрании планируется обсудить насущные проблемы жителей и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советов старших по домам было принят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также в Долинском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ах. Активные домоуправы стали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жильцами своего дома, главой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ены меры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 всех школа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ях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проведены внеплановые проверки и инструктажи. Вопрос обсудили на рабочем совещани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 Недавно произошла страшная трагедия под Ульяновском. Мужчина открыл стрельбу в детском саду. Необходим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и, что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такое не произойдет, и обеспечи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Прошу доложить о провед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области, – обратилс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министру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По словам Анастасии Киктевой, во все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дены совещания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по укреплению и снижению уязвимости объектов с отработкой алгоритмов действий в условиях ЧС, с учащимися в рамках уроков ОБЖ, БЖД и классных часов проведена разъясн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по эвакуации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усилены контроль пропускного режима и работа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служб. Проведены проверки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систем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оповещения, кнопки экстренного вызова охраны.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регулярный обход зданий, проведены внеплановые инструктажи с сотрудниками частных охра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Отмечу, чт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ежегодно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яется субсиди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В 2022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ее 2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ера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3 года и позволила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обеспеч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истемами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контроля и управления доступом в здания, ограждением периметра, наружным освещением и кнопкой вызова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неведомственной охраны,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я системы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щенности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очередных поправках в бюджет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ее 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во все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егиона разработаны Кризисные планы. Они включают разные компоненты и напр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физической, но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учающихся и сотрудников.

В Шахтерске до конца года достроят новую школу и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держит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рассчитанную на 400 мест, переедут ученики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посещают признанную аварийно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школу №1. Здание н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строится по всем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помимо классов 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разместятся детские спальни и игровые комнаты.

– Уже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возведению здания и подведению сетей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к объекту.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вентилируемого фасада, монтажу перегородок, устройству системы вентиляции, прокладке наружных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ланируется до конца 2022 год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На две трети готов и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Шахтерска. Возведены два из трех блоков здания, в них ведутся отделочные работы. Строится третий блок, где расположится актовый зал на 25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Застройщик уже приступает к работам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и.

– В здании Центра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дворец культуры, который ранее располагался на этом же месте. Кроме того, сюда переедет школа искусств, которая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аварийном здании.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планируется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 рассказал ведущий инженер управления капит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Сергей Бартоновский.

– Мы занимаемся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м жилом здании 1956 года постройки. Условия, конечно, не современные. У нас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театральное и музыкальное отде-

ления, более 250 учащихся. В новом помещении будут просторные залы и кабинеты с необходимой шумоизоляцией, мастерские, специа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групповых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занятий. Поэтому ждем переезда с нетерпением, – поделилась директор ДШИ им. А.К. Лядова Ольга Вылекжанина.

Отмети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едется по всему региону. Новые школы возводятся в Ногликах и селе Кировск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Аниве строится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на 350 мест. Возведение и ремонт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зданий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народной программы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ахалинские партийцы организуют штаб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и родительского контроля, которые вносят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на этапе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объектов. В ход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ли ремонта зданий единокорпусы контролируют, чтобы все пожелания людей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Ещё 12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влеку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Земский доктор/Земский фельдшер». В числе специалистов – фельдшеры, участковые терапевты, педиатры и кардиологи. Они будут трудоустроены в течение этого года.

Маргарита Маленко при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из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в 2020 году.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она работала фельдшером ФАП в большом селе. Программа «Земский доктор» заинтересовала нов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мерами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ростом.

– После переезда сразу попала в новый ФАП – в селе Песчанс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ым оснащено учреждение, позволяе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уверенно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м установили аппаратуру для «умного ФАПа»,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о многим медицинским вопросам отп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езжать за пределы села – консультацию нуж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 месте, – рассказала Маргарита Маленко.

Отметим, старт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медицинских кадров в сельск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дан в 2013 году. За это время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были 62 специалиста – фельдшеры, врачи-педиатры, терапевты, психиатры, неврологи, специалисты клин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ной и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хирурги, анестезиологи-реаниматологи, врачи общей практики, акушеры-гинекологи, патологоанатом, рентгенолог, стоматолог и эндокринолог.

Дорогу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на два года раньше срока

Участок трассы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проходящий через село Парусн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дадут досрочно,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Протяженность отрезка составляет 3,3 километра.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дря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ыполнил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демонтаж существующего обустройства, устройство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приступила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й водопропускной трубы,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земляного полотна, укреплению кюветов, также выполняются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мостового перехода через реку Парусная,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ГКУ «Сахалинавтодор» Вадим Дум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контрактом срок завершения работ предусмотрен в октябре 2024 года. Выполнить их значительно раньше удастся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им темп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Досрочный ввод участк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е движение транспорта и пешеходов, что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в развит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По окончании пол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абот участок заасфальтируют.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отрезка пути обустроят тротуары с ограждением, автобусные остановки, пешеходные переходы и уличное освещение.

Напомним,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ют строить дороги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привлекая при этом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Так, с 2022 по 2024 годы в области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о 98,1 километра дорог,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 38,2 километра. На эти цели направят около 4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дорогам – Невельск-Томари-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Здесь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несколько участко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36 километров.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начнут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соединяющей федеральные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8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추가 신청 공고문

※ 취소된 제81회(22.4.10.) 응시자는 그대로 제83회에 승계됩니다. 추가 응시 희망자 신청 공고입니다.

1. 실시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2022년 5월 4일 ~ 5월 20일(평일 09:00~17:00)
- 원서 접수 장소: 사할린한국교육원(전화 4242-505-696)
-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TOPIK1) 1,000루블, (TOPIK2) 1,200루블
- 원서접수 기간 중의 신청 취소, 질병에 의한 사전 취소 시(증빙서류)는 100%환불
- 기타 취소 또는 미응시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 원서 접수 시 준비물: 증명사진 2매(3cm×4cm), 응시 수수료, 신분증
- 성적 발표: 2022년 8월 18일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2. 시험 시행

- 시험 일자 : 2022년 7월 10일(일)
- 시험 장소 : 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한인문화센터 내)
- 시험 시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비고
TOPIK I	1교시	듣기/읽기	09:10	09:40	11:20	100	오전
TOPIK II	1교시	듣기/읽기	12:20	12:50	14:40	110	오후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3. 시험 안내

- 입실 시간: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 응시자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 유효 신분증: 여권, ID카드 등(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포함, 유효기간 미경과)
- 응시자 유의 사항
- 듣기/읽기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양면사인펜(시험장에서 배부)으로 작성
- 듣기 시험 중에는 듣기 답안만, 읽기/쓰기 시험 중에는 읽기/쓰기 답안만 작성해야 함
-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시험 수준별(TOPIK I, II) 지원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시험 시행하지 않음
- 접수기간 외 추가접수 불가
- 접수한 시험장 외에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시험장 변경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할린한국교육원(전화: 7-4242-505-696)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5월 4일
사할린한국교육원장

Мун Чжэ Ин попрощался с корейцами в качестве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вение Сеула налаж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воцировало скрытые трения в отношениях США с РК, и в Вашингтоне в целом с облегчением вздохнули, когда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демократы не продолжат правление, а после Муна к власти придут консерваторы с ярко выраженной проамериканской ориентацией. Отношения Сеула с Токио при Муне пережили ряд серьезных кризисов.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имели очень напряж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Так или иначе, Мун, наверное, все же может повторить известную крылатую латинскую фразу: "Я сделал все, что смог, кто может, пусть сделает лучше".

Так или иначе, но Мун Чжэ Ин уходит с поста с самым высоким рейтингом, который когда-либо был у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на момент завершения правления.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им опросам, Муна поддерживают 42-45 процентов корейцев, что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ом для уходящих президентов РК. Да и в целом за все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Мун пользовался солидной поддержкой.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было 84 процента поддержки, а самым низким -29.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его рейтинг стабильно колебался в районе 40 процентов. Для корейцев, у которых в характере возлагать сначала чрезмерно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на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а затем очень сильно разочаровываться, так как ожидаемых чудес

не произошло, свыше 40 процентов - очень высокий и,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Тот же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имеет сейчас рейтинг всего лишь 41 процент, что является аномально низким для начинающего лидера. У Юна теперь есть шанс и пять лет времени, чтобы доказать, что зря многие в нем сомневаются, а Южная Корея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будет успешнее, чем при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е.

Многие политологи с любопытством задаются вопросом, продолжит ли Мун не самую приятную традицию корейских президентов, которых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правления затем начинают регулярно вызывать на допросы следователи, и в итоге экс-президенты оказываются за решеткой. Пока лично к Муну серьезных претензий и обвинений в его адрес не было, а у него само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стаются миллионы предан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Он собирается тихо жить с женой и несколькими собаками в личной резиденции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где купил участок земли и построил дом. Согласно традиции, все президенты РК в итоге пишут мемуары, где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ют свой период нахождения на "посту №1". В Корею не особо принято, чтобы бывшие лидеры продолжали активн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ам Мун,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не намерен нарушать подобный обычай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обирается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обыч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зве что не с самым обычным прошлы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이념을 넘어 지켜야 했던 것

영화 <모가디슈>는 30년 전 소말리아 내전에서 함께 살아남은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실화를 생생하게 엮었다. 이념과 체제가 생존의 본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류승완식 휴머니즘이 파헤쳐진다.

(전호의 계속)

"관객이 인물에 몰입하고 그들과 함께 내전 상황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개되는지 사실적으로 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화가 공개되기 전까지 조마조마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너무나 잘 알지만 관객에게는 그것이 첫 경험이다. 그러니 익숙하지 않은 역사적 배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걱정됐다. 다행스럽게도 관객이 영화 속 내전 상황을 무리 없이 잘 이해한 것 같다."

북한으로 기울었던 균형추는 반군이 진짜 전쟁을 일으키는 중반부부터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동요하며, 군부가 모가디슈로 진입해 국가를 장악하는 쿠데타 과정이 세세하게 그려진다. 그러면서 서사는 남과 북의 외교전에서 모가디슈 탈주극으로 전환된다.

긴박한 상황 속에 남한 대사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받아들이면서 남과 북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남한으로의 전향이나 북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파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목표는 탈출해 살아남는 것, 오로지 그것 하나뿐이다. 탈주극은 류 감독이 처음 시도한 장르가 아니다. <군함도>의 후반부에서 조선인 징용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탈주한다. 하지만 그 탈출 신이 감독의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판타지라면, <모가디슈>의 그것은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슷한 시기의 소말리아를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영화 <블랙 호크 다운>(黑鷹計劃, Black Hawk Down; 2001)이나 미국 CIA 요원이 이란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주이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탈출시키는 <아르고>(逃离德黑兰, Argo; 2012) 역시 실화를 기반으로 한 탈주극이지만, 한 국가가 자국민을 구출하는 작전을 그려낸 앞의 두 영화와 달리 <모가디슈>는 내전으로 인해 치안이 파괴되고 통신이 두절된 주재국 수도를 냉전 속에 대치 중인 적대국의 외교관들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힘을 합쳐 탈출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긴박한 상황 속에 남한 대사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받아들이면서 남과 북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남한으로의 전향이나 북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파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류승완식 휴머니즘

남북한 대사관 직원 20여명이 자동차 4대에 나눠 탄 채 화염병과 총알 세례를 뚫고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질주하는 후반부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자 류승완식 휴머니즘이 고스란히 반영된 명장면이다.

포드 머스탱이 서울 명동 거리를 질주했던 류 감독의 전작 <베테랑>과 달리 이 영화 속 자동차들은 '모래주머니와 책을 매달아' 속도를 내지 못해 아슬아슬한 묘미가 있다. 그런데도 서스펜스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건 관객이 함께



모가디슈가 무장 군인과 반란군의 총격전으로 아수라장이 되기 전 남북한 외교관들은 각기 자국의 UN 가입에 소말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었다. 남한 대사 역의 김윤식(전면 왼쪽)과 북한 대사 역의 허준호가 긴장된 관계를 보여준다.

© 롯데엔터테인먼트

타고 있는 느낌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류 감독은 "진짜 같아야 한다는 원칙 안에서 신경 썼던 건 '스펙터클해서는 안된다' 였다. 쏟아지는 총알과 화염병 속에 질주하는 인물들의 절박함이 전달되려면 스펙터클보다는 서스펜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했다며 "카메라가 자동차 외관보다는 차 내부 상황을 중점적으로 담아낸 것도 그래서다. 무엇보다 관객이 차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끼게 하려면 사운드를 생생하게 구현하는 게 필요했다. 사운드팀이 녹음실에서 차 소리와 총격 소리를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4대가 사람을 가득 태워 느린 속도로 반군의 추격을 따돌리는 숨막히는 광경을 그 흔한 인물의 클로즈업이나 눈물샘을 자극하는 오케스트라 음악 없이 카메라에 담아낸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소말리아를 탈출한 비행기 안에서 남북한 인물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정갈하고 담백하게 묘사되었다.

류 감독은 "비행기 안에서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들이 많이 울었다. 촬영 후반부라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였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긴장된 상태로 함께 지냈겠나"라며 "그 장면이 과거에서 종결되는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힘을 가지려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보다는 여운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모두가 그 상황이 어떤 감정과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라고 말했다.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영화의 중반부에서 남한 대사의 부인이 껌을 씹어내지 못하자 북한 대사의 부인이 자신의 젓가락으로 도와주는 장면이 몽클렷던 것도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연대를 보여준 덕분일 것이다. 아마 이 대목에서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JSA安全地帶, Joint Security Area; 2000)에서 남북한 병사들이 초코파이 하나로 우정을 나누던 장면이 절로 떠오른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삶의 의지, 또한 체제와 이념보다 인간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휴머니즘 - 류 감독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메시지다.

(끝)

김성훈 (Kim Seong-hoon 金勳) 씨네 21 기자 (Reporter, CINE21) (Koreana 잡지, 겨울2021)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Одна из аллей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арка с архивистами негласно приобрела статус исторической 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цепцие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ГИА СО — «Истории связующая нить», посвященного 75-летию региона, обновляется каждый квартал, т.е. сезон.

Отдавая дань партнеру и хозяину — парку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первая выставка знакомила с его буднями и праздниками в 1950-80-х, вторая — с зимним спортивным Сахалином. Третья страница фотопроекта, охватив тот же временной отрезок,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преобразен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лагодаря советским градостроителям.

Как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област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ергей Чарочкин,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экспозиции фотодокументы зафиксировали важный период — когда закладывалась база строительной индуст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рмировался кадровый потенциал, утверждались традиции отрасли, складывался облик нашего города.

Как было и как стало — в этом разрезе выставка дарит молодым островитянам моменты открытия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Молодой Южный предстает с грунтов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вместо дорог, зарослями сорняков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и вместе с тем контурами будущих ключевых сооружений.

Стадион «Спартак», Сахинцентр, кинотеатр «Октябрь», микрорайон «Черемушки», област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амятник Ленину и другие по сей день остаются главными топографическими ориентирами.

Объективы фотографов Привезенцева, Соколова, Кречетова, Журавлева, Агличиева ловили на самых знаковых объектах лица строителей, простых и титулованных. Архивные фото возвращают из плена забвения людей труда — штукатуров-маляров Жихорского и Зайцеву, бригадира бетонщиков Андрея Товкуса, бригаду Василия Малова,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Михаила Титякова.

И в каждом черно-белом кадре непостижимым образом заложена гордость профессией создателя. А большие начальники попадали в кадр не у микрофона, а с лопатой или мастерком в руках на субботниках,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оявлением горячего желания населения побыстрее сделать свой город лучше.

Следующая выставка проекта «Истории связующая нить» откроется осенью.

сахалин 참전용사들 복지용 택시 적극 이용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요청으로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무료 택시 승차가 이용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서비스로 77회 이용됐으며 주 디지털개발부가 복지 서비스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지원책으로서 복지 택시 서비스는 2020년 3월에 시작되어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는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сахалин주 디지털 및 공학개발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년층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2022년 1월부터 3

월까지 연금 수급자들이 무료 교통편 서비스 '안텍스 택시'를 77회 이용했다고 밝혔다.

복지 택시 사업을 위해 전화 노선도 조직되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는 평일 오전 9시 - 17시까지 복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전화:(75-52-41, 8-914-083-04-25)로 예약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화:(8-914-083-04-25)로 예약을 접수한다.


Ветераны Сахалина активно пользуются социальным такси


Бесплатные поездки на такс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льзуются спросом у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I квартале 2022 года услуго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77 раз — за работой социального сервиса следит областное минцифры.

Сервис социального такси как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ветеранов ВОВ действует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больше двух лет — услугу запустили в марте 2020 года. Как уточн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жилые граждане активно пользуются ею. Только с января по март 2022 года пенсионеры заказали льготный транспорт сервиса «Яндекс.Такси» 77 раз.

Для работы социального такси организовали телефонную лини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казать льготный транспорт можно в будние дни с 09:00 до 17:00 —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озвонить по номерам: 75-52-41, 8-914-083-04-25. А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к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 по номеру 8-914-083-04-25, время работы — с 10:00 до 13:00.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КОНЦЕРТЫ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ж. (주필) 배 워트리아</p>					